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 한국 지속성장 수준 OECD 24위

목 차

■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 한국 지속성장 수준 OECD 24위

Executive Summary	i
1. 선진국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경제	1
2. 국가지속성장지수의 개념과 산출 방법	3
3.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 결과	7
4. 시사점	11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박 용 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 한국 지속성장 수준 OECD 24위

■ 선진국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경제

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가장 빨리 캐치 업(catch-up)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G7과 같은 선진국 그룹과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G7 국가보다 1980년대, 2010년대 각각 약 5.9%p, 2%p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1980년대 1만 570달러에서 2010년대 1만 7,839달러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장잠재력 약화 및 분배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경제·사회적 응집력마저 약화되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 국가지속성장지수의 개념과 추정 결과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속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3개 소분류), 안정성장(3개 소분류), 조화성장(3개 소분류)으로 나눠 지수화한 것이다.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 결과 한국은 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이 20위(0.398), 안정성장이 23위(0.438), 조화성장이 27위(0.491)로 나타나 종합지수 24위(0.443)로 평가되었는데, 해당 항목지수 모두가 OECD 28개국 대상 및 주요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혁신성장

(기술혁신력) 한국의 기술혁신력은 0.465로 O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며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R&D투자 규모 수준과 PCT 국제특허출원건수, 창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인적혁신력)** OECD 국가 평균 0.493을 하회하는 0.427에 그쳐 19위로 평가되었다. GDP 대비 교육지출과 취업자 1,000명당 연구 인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교육시스템의 질은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성혁신력)** 한국은 0.302로 OECD 국가 중 28위인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총요소생산성과 첨단기술 이용가능성은 중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하며 생산성혁신력 측면의 낮은 순위를 주도하였다.

2) 안정성장

(내수창출력) 한국은 OECD 평균 0.477을 하회하는 0.426에 그쳐 19위로 평가되었다. 가처분소득 중위 50% 이하 인구비중과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상대국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외수확장력)** OECD 국가 중 23위로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OECD 국가 평균 0.579를 하회하는 0.44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GDP 대비 수

출 비중과 지역 간 무역협정 참여건수가 상대국들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이 원인이다. **(투자환경)** 한국은 0.445로 OECD 국가 중 19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과 정부 효율성 측면 때문이다.

3) 조화성장

(사회통합)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OECD 평균인 0.748을 크게 하회하는 0.595에 그쳐 25위로 평가되었다.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수준 및 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시스템)** OECD 평균인 0.496을 밑도는 0.218로 추정되며 구성 항목 중 가장 낮은 순위인 27위로 평가되었다. 이는 조세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 원인이다. **(환경적고려)** 한국은 0.661로 OECD 국가 중 18위를 기록하며 조화성장 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OECD 평균 0.661와 동일한 수준으로 GDP 대비 환경관련 조세비중, 환경관련 기술개발 비중 등이 중상위권을 기록하며 환경적고려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 결과 >

구분	국가지속성장지수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한국	0.443	24위	0.398	20위	0.438	23위	0.491	27위
OECD평균	0.542		0.464		0.528		0.635	
주요선진국	0.542		0.510		0.537		0.57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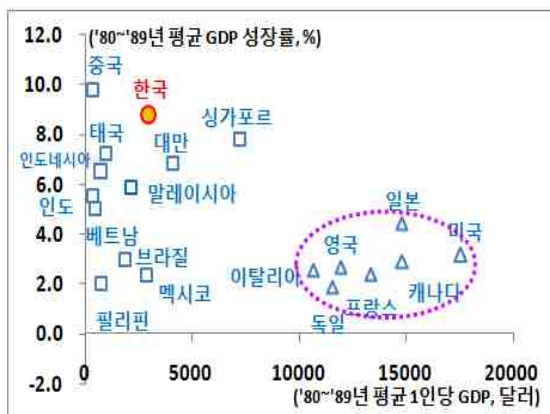
첫째, 한국경제는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新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인적자본 고도화 뿐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 활력과 내외수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확대 등이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관련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자 및 다자 간 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외수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 투명성 제고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패방지과 국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성장친화적 분배시스템을 구축하여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꾀해야 한다. 분배가 성장을 개선하고 성장이 분배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은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를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1. 선진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경제

○ 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가장 빨리 캐치 업(catch-up)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G7과 같은 선진국 그룹과는 큰 격차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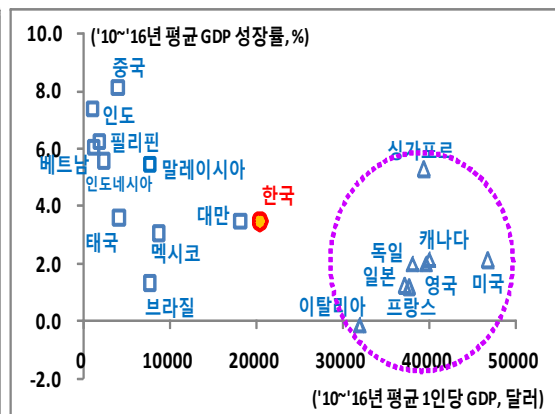
- 한국경제는 1980년대 주요 선진국의 3배 이상 빠르게 성장
 - 19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8.8%로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평균 2.8%보다 약 5.9%p 높은 성장세를 시현
 - 동기간 평균 1인당 GDP는 한국이 2,932달러, G7 국가 평균이 1만 3,503달러로 양자 간 격차는 1만 570달러 수준이었음
- 2010년대에도 경제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 보다 높았으나, 1인당 GDP 격차는 1980년대에 비해 확대
 - 2010~2016년 한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3.4%로 G7 국가들(동 1.5%)에 비해 약 2%p 높았음
 - 단, 동기간 한국의 평균 1인당 GDP는 2만 5,658달러인데 반해 G7 국가는 4만 3,497달러로 1인당 GDP 격차는 1만 7,839달러로 1980년대에 비해 오히려 확대되었음

< 1980년대 평균 GDP 증가율 및 1인당 GDP 수준 >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 2010년대 평균 GDP 증가율 및 1인당 GDP 수준 >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 최근에는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경제·사회적 응집력마저 약화되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 잠재성장률 급격히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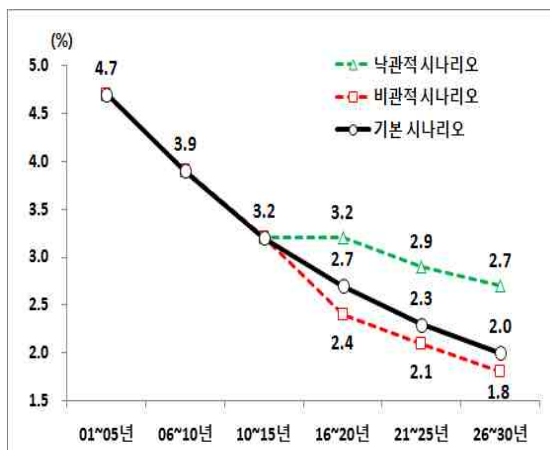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0~2015년에는 3.2%로 하락,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후 한국은 2030년까지 2%대 성장에 그칠 전망
- 향후, 대외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는 1%대 성장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음

- 증폭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2009년 0.62점에서 2011년 0.58점으로 하락한 후 2013년에는 0.66점으로 재상승
- OECD와의 격차도 2011년 0.08점에서 2013년 0.15점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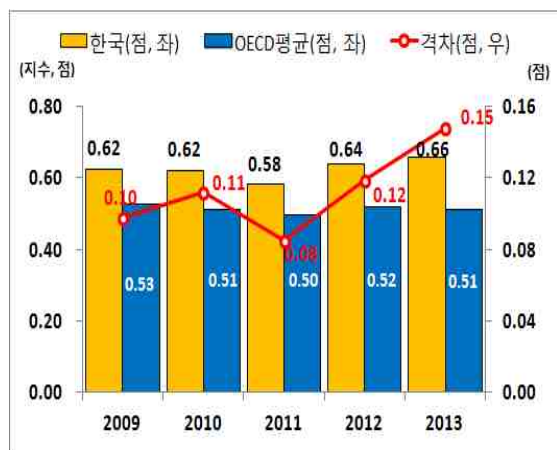
○ 이하 본고에서는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1)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연도별 한국 사회갈등지수 추이2) >



자료 : World Bank,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사회갈등지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강함.

1) 현대경제연구원 (2016)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경제주평 16-03 통권 676호 참고.
2) 현대경제연구원 (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16-45 통권 718호 참고.

2. 국가지속성장 지수의 개념과 산출 방법

1) 국가지속성장 개념과 지수개발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속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성장 개념

- 지속성장 개념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³⁾에서 최초로 제시
 -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성장을 의미
 - 최초, 빈곤 및 인구성장,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경제성장 개념에서 2000년대 사회통합, 환경, 경제성장을 모두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
- 특히 OECD(2011)⁴⁾에서는 지속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을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고려하는 경제성장 개념으로 확립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Stiglitz(2016)⁵⁾ 교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대응, 불평등 해소, 환경에 대한 투자 등이 뒷받침 될 때 지속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이 가능하다고 주장
-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의 국가평가는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부문에만 중점을 두고 질적 성장의 측면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국가와 기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제도와 제반환경에 중점을 두고 평가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높은 경제성장은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⁶⁾
 - 따라서 한국경제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적 수준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및 환경 등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포괄적 지수 추정이 필요

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1987년) 「Our Common Future」.

4) OECD (2011년 2월) 「Sustainable Development」.

5) American Economic Review (2016년) 「How to Restore Equitabl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6) Montfort Mlachila (2015년) 「How to measure the quality of growth」, World Economic Forum Article.

2) 국가지속성장지수 구성 지표 및 산출방법

○ (국가지속성장지수 구성 지표) 경제, 사회 및 환경의 2개 대분류와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의 3개 중분류 그리고 9개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37개 세부지표를 구성

- 국가지속성장지수의 구성

- 국가지속성장지수의 대분류는 지속성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 및 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중분류와 소분류는 OECD(2016)⁷⁾의 국가경제 평가를 참고하여 세부항목을 선정
- 혁신성장은 경제의 공급 측면을 반영하는 기술혁신력과 인적혁신력, 생산성 혁신력 부문으로 구성
- 안정성장은 경제의 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내수창출력, 외수확장력, 투자환경 부문으로 지속성장의 기반이 되는 요소로 구성
- 마지막으로 조화성장은 사회통합, 분배시스템, 환경적고려 항목을 통해 질적 성장의 측면을 평가하는 요소로 지수를 구성

< 국가지속성장지수 세부지표 구성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출처
경제	혁신성장	기술혁신력 (6)	OECD, WEF, World Bank
		인적혁신력 (4)	OECD, WEF
		생산성혁신력 (3)	WEF, Penn World Table, OECD
	안정성장	내수창출력 (4)	UN, OECD, WEF, World Bank
		외수확장력 (3)	WTO, WEF, World Bank
		투자환경 (5)	World Bank, WEF
사회 및 환경	조화성장	사회통합 (4)	UNODC, TI, 현대경제연구원
		분배시스템 (4)	OECD
		환경적고려 (4)	OECD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소분류의 ()는 세부지표 개수.

7) OECD (2016) 「OECD Economic Surveys KOREA」.

8) <참고 1> 국가지속성장지수 세부지표 구성 참조.

- (국가지속성장지수 산출방법)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에 관련된 세부 지표들을 표준화시킨 후 산술평균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도출한 가중치 반영 종합지수는 보조지표로 활용
- (산술평균 방법) 각 구성항목을 표준화⁹⁾ 시킨 후 산술평균하여 국가지속성장지수를 산출
 - 각 소분류의 세부지표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변환 후 지수화
 - 국가지속성장지수는 3대 중분류별 하위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도출되며 1에 가까울수록 지수 값은 고평가
- (주성분 분석 방법¹⁰⁾) 시계열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고려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산출
 - 주성분 분석은 지표의 분산 및 공분산 행렬로부터 고유벡터(Eigenvector)를 도출하고 이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세부 지표를 선형 결합하는 방법
 - 주성분 분석을 활용한 종합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변환된 값을 활용

< 주성분 분석에 의한 국가지속성장지수 부문별 가중치 >

구분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
가중치	0.244	0.437	0.31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산술평균에 의한 종합지수를 부문별 평가를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하되 주성분분석에 의한 종합지수는 상관성 분석을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
 - 산술평균 방법에 의한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가용 가능한 최근 자료를 활용하는 단일시점 분석
 - 반면 주성분 분석을 활용한 국가지속성장지수는 2006~2013년 각국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종합지수의 성격을 지니지만 가장 최근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

9) 표준화 = (지표값-최소값)/(최대값-최소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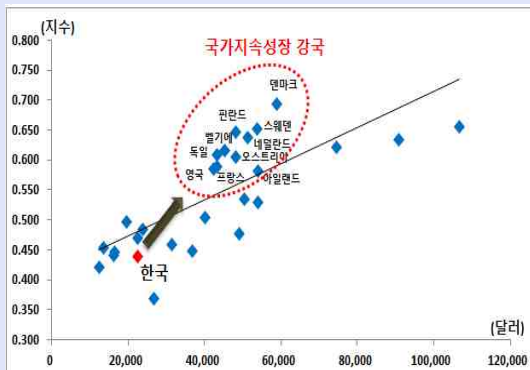
10) 한국은행 (2016년 3월) 「거시경제 불확실성 측정」.

<참고>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국가지속성장지수와 1인당 GDP 사이의 상관관계 및 지수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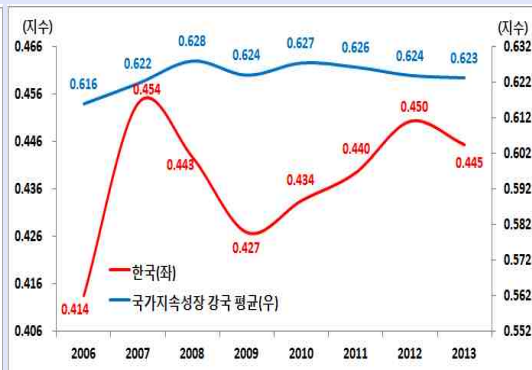
○ 한국 경제는 OECD 28개국 1인당 GDP와 국가지속성장지수의 상관성 분석 결과 추세선 아래 위치

- 한국 경제의 1인당 GDP 수준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고, 국가지속성장지수 역시 '06~'13년 기간 OECD 평균 수준을 하회
 - 한국의 1인당 GDP는 '06년 20,873달러에 진입 후 '13년 25,886달러 → '16년 27,533달러를 기록하며 10년 넘게 2만 달러대에 정체
 - 기준치를 고려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역시 '06년 0.414→'09년 0.427→'13년 0.445로 평가되면서 OECD 28개국 평균 '06년 0.532→'09년 0.546→'13년 0.540을 하회
- 국가지속성장 강국은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지수의 변동성 (Volatility)이 상대적으로 작은 추세적 특징을 보임
 - 한국경제는 1인당 GDP 22,455달러, 국가지속성장지수 0.438를 기록 1인당 GDP와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세선 아래에 위치
 - 추세선 위에 위치한 10개국은 1인당 GDP 40,000달러 이상, 국가지속성장지수 0.584 이상인 국가들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강국 대열
 - 한국과 국가지속성장 강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각각 '07년 0.454→'09년 0.427, '08년 0.628→'09년 0.624까지 하락하였는데, 한국은 고점과 저점의 지수 변동성(Volatility)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

< OECD 국가 1인당 GDP와 국가지속성장지수 상관관계 >



< 한국과 국가지속성장 10대 강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이 >



자료 : World Bank, Ecos, HRI 자체 계산.
 주 : 1인당 GDP 및 국가지속성장지수는 '06~'13년 평균값 활용.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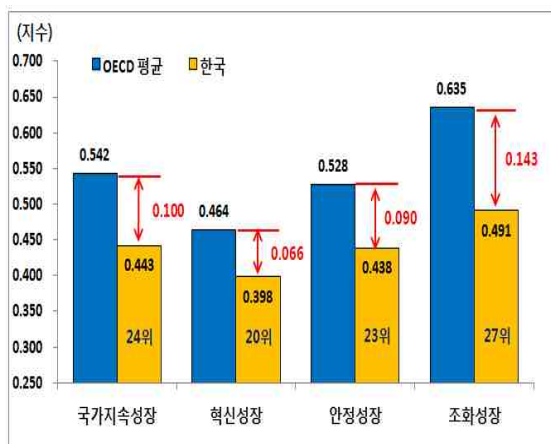
3.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 결과

1) 국가지속성장지수 종합평가

○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는 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이 20위, 안정성장이 23위, 조화성장이 27위를 기록하며 종합지수 24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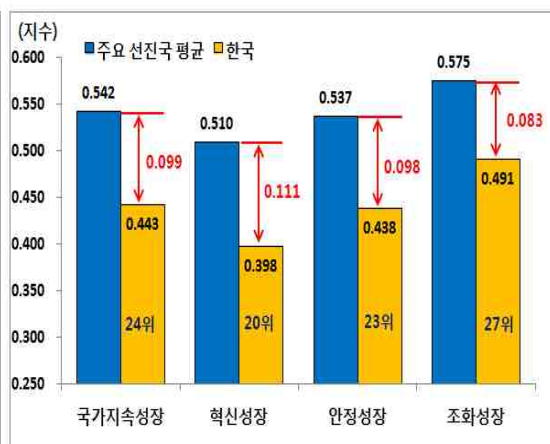
-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는 0.443로 OECD 28개국 중 24위 수준으로 평가
 - 혁신성장이 0.398, 안정성장이 0.438, 조화성장이 0.491를 기록하며 모두 OECD 평균을 하회
 - 특히 조화성장 부문은 OECD 28개국 평균과의 격차가 0.143로 혁신성장 0.066, 안정성장 0.090 보다 상대적으로 큰 수준을 보이면서 전체 순위 하락을 주도
- 한국은 국가지속성장지수 뿐 아니라 중분류 항목인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 모두 주요 선진국¹¹⁾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 혁신성장은 20위로 중분류 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 평균과의 격차는 0.111로 가장 큰 수준을 나타냄
 - 안정성장과 조화성장 부문도 각각 0.098, 0.083의 격차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과 OECD 국가의 국가지속성장지수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11) 선진7개국을 의미하는 G7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국가 대상.

2) 국가지속성장지수 부문별 평가

○ (혁신성장) 한국의 기술혁신력 부문은 인적혁신력, 생산성혁신력과 비교하여 OECD 28개국 평균보다 높은 중상위권으로 평가됨

- (기술혁신력) 한국의 기술혁신력은 OECD 28개국 중 12위
 - OECD 평균 0.427를 상회하는 0.465 수준인 것으로 평가
 - 특히 세부지표인 R&D 투자규모 수준과 PCT 국제특허출원건수, 창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인적혁신력) OECD 28개국 중 19위로 중하위권 수준
 - 인적혁신력 측면은 OECD 평균 0.493을 하회하는 0.427 수준으로 평가
 - GDP 대비 교육지출과 고급인력을 나타내는 취업자 1,000명당 연구인력 지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생산성혁신력) 한국은 OECD 28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평가
 - 생산성혁신력은 0.302로 OECD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됨
 - 총요소생산성과 첨단기술 이용가능성은 중하위권으로 평가되었고,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은 OECD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생산성혁신력 측면의 낮은 순위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됨

< 혁신성장 추정 결과 >

구분	혁신성장		기술혁신력		인적혁신력		생산성혁신력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미국	0.673	1	0.845	1	0.608	9	0.566	3
핀란드	0.595	2	0.492	9	0.795	1	0.499	11
영국	0.541	9	0.553	4	0.567	10	0.504	10
독일	0.534	10	0.591	2	0.503	15	0.509	9
프랑스	0.513	13	0.442	14	0.521	14	0.575	2
일본	0.470	16	0.577	3	0.389	22	0.445	19
한국	0.398	20	0.465	12	0.427	19	0.302	28
이탈리아	0.325	25	0.264	26	0.256	24	0.455	18
OECD평균	0.464		0.427		0.493		0.47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28개국 대상.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터키, 뉴질랜드 자료 누락으로 제외.

○ (안정성장) 한국은 내수창출력, 외수확장력, 투자환경 모두 OECD 평균을 하회하며 중하위권 수준을 나타냄

- (내수창출력) 한국은 내수창출력 측면에서 OECD 28개국 중 19위로 평가
 - 내수창출력은 0.426으로 OECD 평균 0.477을 하회하는 것으로 평가
 - 이는 높은 상대적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이하 비중)과 1인당 실질국민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 영향을 미침
- (외수확장력) OECD 28개국 중 23위로 하위권 수준
 - 외수확장력 측면은 OECD 평균 0.579를 하회하는 0.445 수준으로 평가
 - 해외시장 규모지수는 상위권을 기록하였지만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지역간 무역협정 참여건수는 중하위권으로 평가되어 낮은 외수확장력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 (투자환경) 한국은 0.445점으로 OECD 28개국 중 19위를 기록
 - OECD 28개국 평균 0.527을 하회하는 19위를 기록하면서 소분류 항목인 내수창출력과 함께 중하위권 수준으로 평가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과 정부 효율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되는데 투자환경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안정성장 추정 결과 >

구분	안정성장		내수창출력		외수확장력		투자환경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룩셈부르크	0.740	1	0.612	3	0.859	1	0.749	3
네덜란드	0.673	2	0.548	11	0.735	3	0.736	4
영국	0.639	5	0.556	10	0.637	10	0.723	6
독일	0.633	6	0.557	9	0.707	5	0.636	10
프랑스	0.568	12	0.575	5	0.642	9	0.486	18
미국	0.508	14	0.562	8	0.385	25	0.578	13
일본	0.471	17	0.426	19	0.364	26	0.623	11
한국	0.438	23	0.426	19	0.445	23	0.445	19
이탈리아	0.431	24	0.442	18	0.634	11	0.218	26
OECD평균	0.528		0.477		0.579		0.52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28개국 대상.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터키, 뉴질랜드 자료 누락으로 제외.

- (조화성장) 한국의 사회통합과 분배시스템 측면은 OECD 28개국 중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환경적고려 부문은 중하위권 수준을 기록
 - (사회통합)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OECD 28개국 중 25위로 평가
 - 사회통합은 0.595 수준으로 OECD 평균 0.748을 크게 하회하는 25위 수준
 - 우리나라는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 및 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 (분배시스템) 조화성장의 구성 항목 중 가장 낮은 순위인 27위를 기록
 - 한국은 OECD 28개국 평균 0.496를 하회하는 0.218로 평가
 - 이는 조세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분석 대상인 OECD 28개국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부터 기인
 - (환경적고려) 한국은 0.661점으로 OECD 28개국 중 18위를 기록하며 조화성장의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로 평가됨
 - 한국은 OECD 28개국 평균인 0.661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고평가
 - 온실가스 및 도시쓰레기 배출량은 OECD 28개국 중 많은 편에 속해 있었지만 GDP 대비 환경관련 조세 비중과 환경관련 기술개발 비중은 중상위권을 기록하며 환경적고려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조화성장 추정 결과 >

구분	조화성장		사회통합		분배시스템		환경적고려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덴마크	0.853	1	0.872	7	0.807	1	0.878	1
핀란드	0.777	2	0.873	6	0.727	2	0.731	5
프랑스	0.676	11	0.689	20	0.696	4	0.643	22
독일	0.653	13	0.810	12	0.539	12	0.610	25
이탈리아	0.610	15	0.516	27	0.581	9	0.733	3
영국	0.594	17	0.774	14	0.354	24	0.653	19
일본	0.587	20	0.813	11	0.399	19	0.550	27
한국	0.491	27	0.595	25	0.218	27	0.661	18
미국 ¹²⁾	0.327	28	0.646	22	0.213	28	0.123	28
OECD평균	0.635		0.748		0.496		0.66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OECD 28개국 대상.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터키, 뉴질랜드 자료 누락으로 제외.

12) 미국의 환경적고려 부문은 GDP 대비 환경관련 조세비중, 온실가스 및 도시쓰레기 배출량 부문에서 최하위인 28위를 기록한 점이 반영된 결과.

4. 시사점

- 향후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노력과 분배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경제는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
 - 기술혁신은 한국경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R&D 투자 효율성이 낮은 수준이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新산업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한 수준을 나타내는 등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존재
 - 또한 혁신·융합형 경제 구조에 맞는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위해 학제를 다양화시키고 실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낮은 수준인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완화,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 둘째,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 활력과 내외수 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함
 -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확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이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양자 및 다자 간 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외수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셋째,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 투명성 제고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갈등해소와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생산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추구해야 함
 - 특히, 부패방지과 국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정치적 안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 넷째, 성장 친화적 분배시스템을 구축하여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꾀해야 함
 -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저성장 등의 문제는 앞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을 통한 분배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국경제는 사회통합이나 분배, 환경적고려 등 성장기에 소홀히 했던 부문들의 상대적 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실정
 - 따라서 분배가 성장을 개선하고 성장이 분배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은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를 인지할 필요성이 있음

- 다섯째, 한국 경제가 국가지속성장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흡한 부문은 시급히 개선하고, 잘하고 있는 부문은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해야함
 - 국가지속성장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 되었을 경우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러 부문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한국경제가 일부 강점을 보이는 혁신성장 부문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부문인 조화성장과 안정성장 측면을 개선시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함

박용정 연구원 (2072-6204, yongjung@hri.co.kr)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참고 1> 국가지속성장지수 세부지표 구성

대분류 (2분류)	중분류 (3분류)	소분류 (9분류)	세부지표
경제	혁신성장 13개 지표	기술 혁신력	R&D 투자 규모 (OECD) 대학-산업간 R&D 협력 (WEF) 창업환경 (World Bank)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한 기술 이전 (WEF) PCT 국제특허출원건수 (OECD) 기업혁신역량 (WEF)
		인적 혁신력	GDP 대비 교육지출 (OECD) 교육시스템의 질 (WEF) 전문직업훈련서비스 이용가능성 (WEF) 취업자 1,000명당 연구인력 (OECD)
		생산성 혁신력	첨단기술 이용가능성 (WEF) 총요소생산성 (Penn World Table)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 (OECD 활용 자체계산)
	안정성장 12개 지표	내수 창출력	인구증가율 (UN) 가처분소득 중위 50% 이하 인구비중 (OECD 활용 자체계산) 국내시장 규모 지수 (WEF) 1인당 실질국민소득 (World Bank)
		외수 확장력	지역 간 무역협정(RTA) 참여건수 (WTO) 해외시장 규모 지수 (WEF) GDP 대비 수출 비중 (World Bank)
		투자환경	규제의 질 (World Bank) 상품시장 효율성 (WEF) 재산권 보호 (WEF) 정부 효율성 (World Bank)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 (World Bank)
사회 및 환경	조화성장 12개 지표	사회통합	정치적 안정성 (World Bank) 범죄율(살인율) (UNODC) 부패지수 (TI) 사회갈등지수 (현대경제연구원)
		분배시스템	국민부담률 (OECD) 1인당 조세부담액 (OECD)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OECD) 지니계수 (OECD)
		환경적고려	GDP 대비 환경관련 조세 비중 (OECD) 환경관련 기술개발 비중 (OECD) 온실가스 배출량 (OECD) 도시쓰레기 배출량 (OECD)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참고 2> OECD 국가지속성장지수 비교

순위	국가명	국가지속 성장지수 (산술평균)	국가지속 성장지수 (주성분분석)	혁신 성장	안정 성장	조화 성장
1	덴마크	0.685	0.696 (1)	0.587 (5)	0.615 (8)	0.853 (1)
2	핀란드	0.654	0.648 (4)	0.595 (2)	0.591 (11)	0.777 (2)
3	스웨덴	0.648	0.655 (3)	0.571 (7)	0.628 (7)	0.746 (6)
	룩셈부르크	0.648	0.658 (2)	0.451 (17)	0.740 (1)	0.754 (3)
	노르웨이	0.648	0.636 (6)	0.589 (4)	0.602 (9)	0.752 (4)
6	네덜란드	0.644	0.641 (5)	0.548 (8)	0.673 (2)	0.710 (7)
7	스위스	0.633	0.624 (7)	0.592 (3)	0.650 (4)	0.657 (12)
8	벨기에	0.628	0.618 (8)	0.576 (6)	0.599 (10)	0.710 (7)
9	독일	0.607	0.611 (9)	0.534 (10)	0.633 (6)	0.653 (13)
10	오스트리아	0.596	0.608 (10)	0.481 (14)	0.561 (13)	0.748 (5)
11	아일랜드	0.593	0.584 (13)	0.518 (12)	0.666 (3)	0.595 (16)
12	영국	0.591	0.587 (12)	0.541 (9)	0.639 (5)	0.594 (17)
13	프랑스	0.586	0.591 (11)	0.513 (13)	0.568 (12)	0.676 (11)
14	아이슬란드	0.553	0.537 (14)	0.520 (11)	0.456 (18)	0.682 (10)
15	호주	0.519	0.532 (15)	0.475 (15)	0.490 (16)	0.593 (18)
16	일본	0.510	0.505 (16)	0.470 (16)	0.471 (17)	0.587 (20)
17	체코	0.504	0.500 (17)	0.381 (21)	0.499 (15)	0.631 (14)
18	미국	0.503	0.479 (19)	0.673 (1)	0.508 (14)	0.327 (28)
19	슬로베니아	0.490	0.486 (18)	0.375 (22)	0.413 (26)	0.683 (9)
20	포르투갈	0.482	0.472 (20)	0.442 (18)	0.418 (25)	0.588 (19)
21	에스토니아	0.464	0.449 (24)	0.424 (19)	0.439 (22)	0.529 (25)
22	폴란드	0.459	0.423 (27)	0.336 (23)	0.453 (19)	0.587 (20)
23	이탈리아	0.455	0.450 (23)	0.325 (25)	0.431 (24)	0.610 (15)
24	스페인	0.443	0.462 (21)	0.326 (24)	0.443 (20)	0.561 (24)
	한국	0.443	0.438 (26)	0.398 (20)	0.438 (23)	0.491 (27)
26	슬로바키아	0.436	0.444 (25)	0.290 (26)	0.442 (21)	0.576 (22)
27	헝가리	0.405	0.455 (22)	0.249 (27)	0.391 (27)	0.576 (22)
28	그리스	0.354	0.371 (28)	0.211 (28)	0.325 (28)	0.527 (2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1) ()는 해당 항목 순위.

2) 산술평균에 의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순위 기준 정렬.